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6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7.16(목)

7.15 총파업, 정리하고 분쇄·원청교섭 쟁취 결의

금속노조 경주지부, 경북대회 참가..

네이처이앤티 원직복귀 투쟁 함께해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26년 7월 15일(수) 13시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7.15총파업 경북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경주지부 집행위와 지회 확대간부 150여 명이 참가하였고, 금속경주 사업장별 교대근무조 각 4시간, 총량 8시간 파업을 전개했다.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38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포항에 모여 네이처이앤티 정리하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네이처이앤티는 지난 5월 18일 노동자 8명을 정리하고했다. 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주장 했지만, 지난해 533억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신규 매립장 확대에 따른 향후 수익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진의 무리한 투자 손실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또한 회사는 정리하고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자료 제공과 성실한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네이처이앤티지회는 이번 정리해고가 경영상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흔들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회는 포항시청 앞 약식집회로 시작했다. 송무근 민주노총 포항지부장은 사전대회 투쟁발언에서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는 단순한 경영위기 문제가 아니라

신규 매립장 특혜 의혹과 그룹 내부거래 의혹, 경영진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긴 문제”라며 “이번 투쟁은 경북지역 민주노조를 지키는 싸움인 만큼 경주·포항·구미가 함께 단결해 정리해고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까지 행진한 뒤 포항지청 앞에서 본대회를 진행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기업은 호황을 말하고 정부는 기업 지원을 앞세우지만,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와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자의 관점으로 원청 책임을 묻는 투쟁을 만들고,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원청교섭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민주노총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하영 금속노조 네이처이앤티지회장은 “해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몰락이 아니라 일할 권리”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맞서고,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는 경영위기와 산업전환을 이유로 현장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를 개별 사업장만의 문제로 둘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 또한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요구하고, 사용자와 정부가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주지부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조직화 현장순회를 바탕으로 이날 경북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7·15 총파업이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 현장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경주지부는 정리해고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고용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